

宣祖때 痘瘡 퇴치한 「東醫寶鑑」 남긴 聖醫

의학자 許 浚

朴 星 來 <외대인문대학장/과학사>

우리 전통의학의 명저 <동의보감>(東醫寶鑑)이 크게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통의학이 각광을 받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극작가 이은성씨의 소설 <동의보감>이 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책을 지은 선조시대의 의학자 허준(許浚, 1546-1615)이다.

侍醫로 死境왕자 살려

임진란 직전인 1590년(선조23년)의 일이다. 어느 왕자가 몹시 심하게 앓다가 허준의 치료로 낫게 되자 선조는 기뻐서 허준에게 특별 가자(加資)를 내렸다. 그러자 신하들의 반대가 빗발치듯 했다. 허준이 치료에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의 기분에 따라 전례 없는 상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12월말에 시작된 이 반대의 여론은 사간원과 사헌부가 거의 매일 번갈아가며 반대상소를 올려 1월 7일까지 12일 동안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왕자의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로서 주어진 직분의 일부일 따름인데 그 공로로 허준을 당상관(當上官)으로 올려주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조는 이 반대론을 끝까지 받아들여



陽平君 許浚 像

◇ 許浚 선생

지 않았었다. 그 왕자의 누나도 두창에 걸려 죽고 그 열흘 이내에 이 왕자의 두창이 위급해져서 실로 소생할 희망이 없었던 터에 다행히 허준의 노력으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조선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두창은 여기에는 한자가 두창(豆瘡)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두창(痘瘡)이라 쓰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연두를 가리킨다. 이미 여러해 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세상에서 천연두가 사라진 것으로 선언한 일이 있지만, 우두가 나오기 전에는 천연두란 정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다.

28세대 醫科에 합격

허준은 바로 선조때의 대표적 시의(侍醫)로 왕과 왕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던 의학자였다. 그런데 그가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문제가 큰 반발을 얻고 있었다는 당시의 기록에서도 우리는 그가 정상적인 양반자식이 아니라 서얼(庶孽)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관이 양천(陽川)인 그는 아버지 허륜(許倫)의 첩 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던 과거를 보아 출세하는 대신 의사가 된 것도 아마 그가 서출이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서출에게는 천문학, 수학, 의학 등의 전문분야 공부만이 권장되고 또 그런 관직만이 열려 있던 시절이었다.

허준은 지금의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경남 산청에서 자랐다. 당대의 명의(名醫) 유의태(柳義泰)의 지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28세에서야 의과에 합격하여 내의원(內醫院)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따라 의주까지 피난을 했고, 당시의 고생을 인정받아 뒤에 다른 많은 신하들과 함께 호종(扈從)공신의 줄에 들게된 일도 있다.

약품이름 한글표기

왕자의 천연두를 고치는데 공을 세웠다가 왕과 피난의 고생을 함께 했고 또 수시로 임금의 건강을 담당했다는 등의 관계로 그는 선조의 신임을 굳혀갈 수 있었고, 그가 그의 명저로 알려진 <동의보감> 집필을 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임금의 신임 때문이었다. 처음 선조는 <동의보감> 편찬을 당대 의학계의 대표적 인물을 망라하여 만들 생각이었다. 1596년(선조 29년) 선조는 허준, 정석(鄭碩), 양예수(楊禮壽), 김응탁(金應鑠), 이명원(李命源), 정예남(鄭禮男) 등에게 이 책의 편찬을 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곧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 일은 호지부지되면서, 결국은 허준 혼자만의 일로 바뀌어갔다.

오늘날 <동의보감>을 대개 허준의 책이란 하계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이 정말로 허준 단독의 연구와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고, 얼마나 되는 분량이 다른 원래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완성됐던 것인지는 지금 알 길이 없다. 어쨌든 이 책의 편찬지침으로 선조임금은 그때까지의 모든 의학서적을 다시 정리하여 실용적인 의학서를 만들되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국산약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내린 것이다. 또 이 책의 편찬에 참고하도록 선조는 궁중에 있던 의학서 5백권을 내주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침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이 책의 탕액편(湯液篇)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약품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많은 국산약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동의」(東醫)에 관한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물론 그가 책 제목으로 사용한 「동의」란 「중

국의학」이란 말의 상대적 표현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의학이란 뜻에서 일반적으로 한약(漢藥) 또는 당약(唐藥)이라 알려진 말 대신에 고려후기부터는 「우리의 의학」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가 세종때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은 바로 이와 같은 향약운동의 결과인 셈이기도 하다. 다만 그 전까지 사용하던 향약이란 말 대신 허준은 동의란 표현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후 계승되어 조선말기의 가장 유명한 의학자 이재마(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이란 책을 낳았다.

東醫寶鑑 5편으로 나누

조선시대 민족의학의 대표적 작품인 허준의 <동의보감>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내경(內景) (2)외형(外形) (3)잡병(雜病) (4)탕액(湯液) (5)침구(針灸)가 그것이다.

(1)내경편은 인체의 모양에서부터 일종의 생리학개론, 그리고 5장6부의 설명을 거쳐 지금의 내과질환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2)외형편에는 지금의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성병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잡병편에서는 여러가지 진단과 진맥의 방법도 소개하고 구토, 땀, 설사, 열 등의 증세에 따른 진단문제도 다루고 있다. (4)탕액편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약품에 대한 소개인데, 약물의 분류방식이 물, 흙, 곡식, 사람, 새, 짐승, 물고기, 벌레, 과일, 채소, 풀, 나무, 옥, 돌, 쇠(水土穀人禽獸魚蟲果菜草木玉石金)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5)침구편은 침과 뜸에 대한 부분이다.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을 완료한 것은

1610년의 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그는 여러가지 책을 저술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1581년(선조 14년) 35세의 허준은 <찬도방론맥결집성>(贊圖方論脈訣集成)을 펴냈고, 곧이어 <창진집>(倉珍集)의 개정판을 냈다. 세조에서 성종까지 의학의 대가였던 임원준의 <창진집>을 고치고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한다. 또 1591년에는 전에 노중례가 지었던 <태산요록>(胎產要錄)을 개정해 냈고, 산부인과 책이라 할 수 있는 <태산집요>(胎產集要)의 번역판을 써 놓았다.

전염병예방서 펴내

임진, 정유의 왜란과 이어서 이 땅을 피폐화시킨 병자호란 등의 외침은 우리 의학사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것은 전에 없이 많은 전염병이 이 땅에 흘러들어 왔던 때문이다. 허준의 의학자로서의 관심도 자연히 이들 전염병문제로 집중되어 갔다. 1612년에서 1631년에 걸쳐 전염병은 아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시체가 거리를 채웠다. 허준은 이때에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과 <벽역신방>(벽疫神方) 등의 전염병에 관한 책을 써냈는데, 바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한사람이라도 더 구해내려는 노력이었다.

<동의보감> 이외에도 허준이 남긴 의학상의 업적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허준의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조금 엉뚱한 출세를 하고 있다고 할까? 여하튼 그는 일생을 아주 행복한 의사이며 학자로 살다가 1615년(광해군 7년) 8월13일 세상을 떴다. 70세를 살기간 그에게는 외아들 허겸(訶謙)이 있었다지만,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